

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고난 대처 매뉴얼

성경말씀: 고후4:8-18

날이 추워졌다. 겨울이 되면 몸이 얼듯이 마음도 어는 것 같다. 특히 육신적으로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추운 날씨가 더 몸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것 같다.

하나님이 계절을 주신 이유: 특히 겨울의 추위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.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. 아이들 시집 다 보내고, 학문적으로 완숙의 단계, 성경 사역, 교회 사역, 힘들지만 그래도 잘 감당해 가고 있다. 그럼에도 겨울이 닥치니 감기도 걸리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. 특별히 12월에 들어서면서 고통에 대해 설교하여야 한다는 중압감,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이번 주에는 존 폴락의 사도 바울의 전기를 반 정도 읽었다.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, 역경, 시련, 매 맞는 고통(태형 고후 11:23-24, 5번이나), 너무 맞아 다리가 휘었다.

이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순교하였다(딤후4:6-8).

이런 성도와 나를 비교하자니 시도 차체가 가소롭다.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매일 닥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? <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고난 극복 매뉴얼>, 의미, 하나님의 의도, 은혜, 최종 결과 등을 나누려고 한다.

바울의 기쁨 표현(8-11)

좋은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있다(8), 난처한 일을 당한다(8), 핍박을 받는다(9), 거꾸러뜨림을 당한다(9)

어느 정도인가? 고후1:8, 그 결과 그의 삶은 매일 같이 죽음과의 싸움, 사투

그 목적: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(10-11),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남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을 위한 것이다(12). 나 혼자 있든 교회로 있든, 우리의 삶은 타인을 위한 것 나는 쇠하고 다른 사람은 흥한다. 교회를 한다: 섬김, 건축, 미디어 선교 등 모두 남을 위한다. 바울의 안위는 믿음에서 온다. 구약성도와 동일한 믿음(시116:3, 6-8, 10).

하나님에 대한 믿음, 구출 약속에 대한 믿음(118:4-9), 메시아 시편

그래서 우리도 믿는다. 그래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.

특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에서 구출받는다라는 확고한 믿음(14)

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(15)는 믿음.

그 결과

이런 이유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(16).

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다. 육신은 날로 쇠한다. 힘이 든다.

그런데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. 이근제 어르신, 힘들다. 그런데도 늘 속이 새롭다.

그 이유: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가져다준다(17).

temporal, eternal 한 것(18),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최종 목표

요약 정리

1. 고통은 믿는 사람에게도 닥친다.
2. 많은 경우 믿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당한다.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부 외부의 압박이 심하다.
3.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것: 인생의 의미는 행복이 아니다. 부귀영화가 아니다.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점, 부귀영화 성공, 고통 고난 불행, 부귀영화/승승장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. 내 인생에 그것이 따라오면 OK, 그런데 그것이 인생 성공의 척도는 아니다.
4.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, 부귀영화, 남녀노소 상관없다.
5. 이를 위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필요하다(17). 은 광석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순은이 남듯이

고통을 당할 때 주의할 점:

1. 고립, 2. 자신에게 파묻히는 일(자기 연민), 3. 수치와 정죄, 4. 분노, 5.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는

것

그래서 예배와 교제가 필요하다. 나도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가 금요 모임
주일 예배에 오면 다 잊고 힘을 얻어 돌아간다.

고통을 이기기 위한 믿음 요약

고통과 고난 반드시 온다. 성도는 이것을 잘 이겨야 한다. 불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다.
그런데 오면 성경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기려고 노력해야 한다.

고통과 디프레션이 오면 이제 몇 가지 믿음을 확고히 되새겨야 한다.

1.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의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. 하나님이 내 미래를 쥐고 계신다. “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.”(욥23:10)
2. 가장 큰 고통은 영원 지옥 고통이다. 이를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이루심. 이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.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. 롬8:16-17
3. 아무리 큰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(롬8:38-39).
4.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다.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.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(고전 15:51-53). 살아 있으면 몸의 휴거를 믿는다.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.
5.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(히12:2).

위로의 말씀

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도 고통을 당하셨다.

예수 그리스도(히2:10, 18; 5:8-9), 이 땅에 계실 때에 겔세마네에서 “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.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(마26:39)
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.

그 결과가 무엇인가?(히12:1-2)

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떨치하셨다.

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.

우리의 약속

나의 고통과 고난,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

사도 베드로처럼 시험과 고통을 감당하자(벧전4:12-14).

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

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
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
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빛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텅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
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
어둔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
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
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리도
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
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리이라
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 하지 않으신다네~